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딸)이다.”

온 누리에 하얗게 덮인 눈이 세레 은총으로 죄가 씻겨 깨끗해진 영혼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흰 눈을 보면 누구나 동심에 젖는 것은 그 마음 깊이 순수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 세레 축일이자 우리의 세레를 새로이 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기도 다음 후렴은 주님 세레의 깊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세레를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세레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큰 사건,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아침기도 후렴 역시 세레은총의 감격을 잘 노래합니다. 크나 큰 신비가 오늘 선포되었도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요르단 강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도다.” 세레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비록 우리가 듣지는 못했을망정 우리 모두가 주님께 세레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 온 다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딸)이다.” 예수님께서 세레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분 위에 내리실 때 들려온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레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모두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하느님께 사랑 받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인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존엄성의 근거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품위를 지키며 살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처럼 살기위해 우선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한 번의 세레로 완성되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결코 세레는 구원의 보충 수표일 수 없습니다. 세레 역시 은총의 선물이자 동시에 과제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있어 세레의 완성이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의 기도 없어 냉담하면 영혼도 시들고 은총

의 씨앗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권 하느님 책임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책임입니다. 하여 여기 수도자들은 평생, 매일, 끊임없이 성무일도 와 미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레를 받으시고 즉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의 모습으로 내렸고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레 장면을 통해 기도의 효과와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립니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주님을 알게 하고 그들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내립니다. 성령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에 무한한 축복의 은총입니다.

자비로우십시오.

자비하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처럼 살기위해 자비로워야 합니다. 주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자비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주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됨을 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세레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얼마나 든든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세레 받아 주님의 종이 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선택한 이, 주님이 붙들어 주는 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이들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자비의 은총은 얼마나 크며, 주님의 이 자비의 은총을 잊고 산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은총은 동시에 책임을 뜻합니다. 은총에 맞갖은 충실한 삶이 우리에게 부여된 평생숙제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섬세하고 자상합니다. 연민과 배려가 가득합니다. 남에겐 지지만 자기

에게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닮은 이런 사람이 실상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세상에 공정을 펴리라.”

바로 이게 자비하신 하느님의 마음이며 관상가들이 지향하는 삶입니다. 이런 하느님을 닮은 자비의 사람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든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하느님 아드님이신 예수님,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며 도와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자유로워지십시오.

하느님은 자유이십니다. 세레를 통해 율법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방방되어 자유로워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자유롭습니까?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하느님을 떠나 자유를 찾는 것은 연목구어,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비로소 자유입니다. 주님을 떠난 자유는 환상입니다.

세레 받아 주님의 자녀 되어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 자유인입니다. 자유 없이는 인격도 행복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즉시 우리는 감옥에 갇힌 수인이 되어버립니다. 탐욕과 무지라는 나의 감옥, 세상이라는 감옥, 직장이라는 감옥, ...무수한 감옥들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여 자유를 찾아 방황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역시 감옥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 때 모두는 자유의 문이 되지만 주님을 떠나면 모두는 감옥의 벽이 되어버립니다. 세레를 통해 활짝 열린 자유의 문입니다. 주님만이 무한한 내적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합니다. 바로 여기 수도원에서 평생 정주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수사님들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예수님은 물론 세레 은총으로 자유로워진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주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 갖가지 감옥에 갇힌 이들, 어둠 속에 사는 이들을 빛과 자유의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더불어 누리는 자유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레성사로 끝이 아닙니다. 평생, 성체성사와 고백성사를 통해 끊임없이 정화되고 성화되어 완성되는 세레성사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의 여정 중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세레성사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고백성사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며,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 말씀과 성체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여 주님을 닮아 자비롭고 자유롭게 살게 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당신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성체로 우리를 튼튼케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딸)이다.”

이수철 프란치스코 성 요셉 수도원 원장신부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후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 당 소 식

◎ 사목회의 안내

오는 1월 17일 주일미사 후에 교육관에서
고원일 신부님 주관으로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및 각 구역장, 단체장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목회 부회장 사임 및 구역장 임명

사목회 부회장직을 맡아 수고해 온 윤명원
요셉 형제가 개인사정으로 부회장직을사임 했습
니다. 이에, 고원일 책임 신부님의 명에 따라
공석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고원일 책임 신부
님의 명에 따라 공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동안 공동체를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
니다. 또한 키치너 구역장에 새로이 김동규
요한비안네 형제가 임명되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월 17일과 24일은 안토니다니엘성당 행사관 계
로 친교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10 년 울뜨레아 연례 쇄신평정 안내

▶일 시: 2010년 1월 29일(금) 부터 31일(주일)
▶장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참가비 : \$200.00 ▶문의: 울뜨레아 간사

◎1월 울뜨레아 안내

▶시간: 1월 24일 주일 미사 후 ▶장소: 교육관

◎ 2010년 세계평화의 날 특전미사 안내

▶일시: 2010년 1월 14일 저녁 7시
▶장소: 세인트 마이클 성당
▶집전: 제랄드 버지 주교님

◎ 떼제의 밤 안내

▶일 시: 2010년 1월 17일(일) 오후 7:30
▶장소 : 성안토니다니엘성당

교회의 일치를 위한 기도와 떼제 음악의 밤입니
다.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공동체를 위한 청원기도 안내

* 십자가의 길: 매 주일 오후 4시 15분 분당

(선도자 명단

1월 10일- 총무 한택중 막시모

1월 17일- 재정분과장 고영호 미카엘

1월 24일- 전례신심분과장 최희수 카타리나

1월 31일- 선교분과장 박재영 바오로)

* 목주기도 지향: 각 구역별로

◎ 성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장크리스티나 자매님의 개인 사정으로 성가대
반주를 맡아주실 교우를 찾습니다. (0 명)

▶문의 : 성가대 단장 박재영 바오로/ 지휘자

2009년 12월 27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855.00
교 무 금 : \$ 990.00 40(101) 50(103) 20(105) 100(108) 100(112) 60(116) 100(122)
20(124) 20(130) 50(133) 300(137) 20(143) 20(149) 20(154) 50(166)
감 사 금 : \$ 160.00 100(137) 10(154) 50(166)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금주\$10 (\$5555.00)
합 계 : \$ 2005.00

-용서는 꽃을 피운다

어떤 마법사가 마을 전체에 주문을 걸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 나쁜 말을 내뱉을때,
분노를 담은 그 말은 모두 돌로 변할 것이다."
그때부터 상대에 차갑고 날카로운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은 뜨거운 돌로 변했다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다치기 일쑤였다
그래서 한두개의 돌을 갖고 다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상대방을 향해 던지려고 했다
뜨거운 돌을 들고 다니면 손에 물집이 잡혔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다시 돌을 던져서 분한 마음을 풀 수만 있다면
손에 상처쯤은 생겨도 괜찮았다.
점점 마을은 모든 땅이 돌로 뒤덮여
꽃이 피지 않았다

어느날 한 나그네가 그 말을 지나가다 말했다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란 당신 손에 든 돌을 내려놓는 일이지요."

사람들은 혹 용서하면 상대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나 뜨거운 돌을 내려놓자 자신의 삶이 좋아졌다

그리고 돌들이 사라진 땅을 뚫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은 이야기 中에서 -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 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94 3533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10-02호

2010. 1. 10.

주님 세례 축일

해설 신계연

차주 해설 고영호

성 가

입 당 (149) 어둠의 빛이신 성령

봉 헌 (220) 생활한 제물

성 체 (163) 생명의 성체여

되 장 (4) 찬양하라

화 답 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
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알렐루야**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네
:30

독

서

1월 10일

김태석

김한순

1월 17일

윤명원

윤명희

봉

헌

1월 10일

김흥식

김영자

1월 17일

김태석

김한순

복

사

1월 10일

최예슬

강수현

1월 17일

구하람

노승범

친

교

1월 7일 성모회와 키치너구역